

한국당, 상복 입고 국감 복귀... 곳곳 충돌

방송 적폐·방문진 사태 충돌 교문위 등 상임위 파행 계속

막바지 국정감사가 진행된 30일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철회를 결정하고 국감장에 복귀했으나 곳곳에서 여야는 충돌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복귀를 최종 결정하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상임위별로 국감장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여전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나 선임과 방송 적폐정산을 문제 삼으면서 '여진'이 이어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당의 보이콧 해제를 기다리느라 감사 시작이 40분여 늦어졌지만 이번엔 도중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석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감사가 중지됐다. 한국당 의원들

이도 장관이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평창올림픽 성화를 인수하러 가면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아 감사 중지를 요구했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감사가 50여분간 중지됐다.

여야는 논의 끝에 이날 불출석한 도 장관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에서 추가로 질의하기로 합의하고서 회의를 속개했다.

국감 파행사태의 진양이나 마찬가지로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으로 감사가 일시 중지됐다.

예초 이날 국방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사회권을 권 상태에서 "한국당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이 복귀를 알려 오면서 국감 준비를 위해 30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국감이 멸절히

진행되고 있는데 도중에 들어와서 국감을 중단시키느냐"고 항의했다. 신 의원은 "저따위 위원장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신 위원장과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한국당 홍문중 의원은 외통위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왜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왔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우리 당에서 여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해서 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은 집권 당시에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서 방송을 통제하고 언론 자유 지수를 32단계나 하락시켰다"면서 "한국당은 방송장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집권 당시의 방송장악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

하는 게 솔직히 맞다"고 맞섰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가시가 돋힌 설전을 주고받았다.

한국당 기재위들이 '민주주의 유린·방송장악 저지'라고 쓰인 종이를 노트북에 부착한 것을 가리켜 MBC 기자 출신인 민주당 박광은 의원은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이 철저히 하수인화하고 종속되지 않았나"라며 "계시글을 제거해 국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 보이콧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감 파행에 대해 이유를 떠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김현미 전 기재위원이 상임위에서 (손팻말을 부착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vs 한국·바른정당 '홍종학 공방'

국민의당은 판단 유보

바른정당 역시 후보자에 대해 충공세를 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의 세습이나 대물림을 비판한 분이 스스로 대물림(논란) 한가운데 섰다. 국민 자존심이 납득할 수 없다"며 "빨리 거취를 정하는 게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홍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 혁신성장 정책이 있어 일을 잘할 분"이라며 "탈세 목적의 불법행위인지 등은 청문회를 통해 차분하게 검증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일단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 여론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장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함께 가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4당 원내대표와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30일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에서는 11월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이 적폐정산에 협력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국회를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들은 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정기국회가 돼선 안 된다고 맞서며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11월은 예산·입법으로 국민 요구를 잘 담아내는 급속같은 시간"이라며 "12월 까지 남은(정기국회) 기간은 정말 당리당

락에서 벗어나서 국민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함께 가면 그제 쫓붙민심이 부응하는 일"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국감 보이콧 철회를 결정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 중단은 과거 수백에 따라 뭉개기를 얻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여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강력한 항의 수단이었다"며 "오늘부터 국감에 복귀하지만 보다 강화된 투쟁방법에 들어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민주당이 야권의 요구를 경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 ▲특별감찰관 조속한 임명 ▲지방자치단체

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교육감 선거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기존 요구사항을 재차 확인한 뒤 "(여당이)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결코, 엄포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당이 청와대 옹호에만 앞장서면 정말 어려워진다. 청와대 비판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여당이) 야당 요구 법안을 결정 안 해주면 더 이상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관련 논란에 대해 국회 법사위와 개헌특위에서 다루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재호 민주당 최고위원에 이형석 위원 오늘 임기 마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위원장이 이날 말로 민주당 최고위원 임기를 마감한다.

이어 오는 11월1일부터는 이재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최고위원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2015년 혁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시·도당 위원장이 호선을 통해 최고위원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전국대의원대회 결정에 의해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이 가장 먼저 6개월 간 최고위원직을 맡았고, 이어 이형석 위원장이 3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간 맡았다. 11월1일부터 나머지 10개월은 이재호 전남도당위원장이 호남을 대표해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호 전남도당위원장은 광주·전남지역 민주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도당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함께 내년도 호남 예산 챙기기 등 호남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최고위원 임기를 마감하는 이형석 시당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서 호남에서 압도적 승리를 일궈내는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제2기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강력 촉구했으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헬기기총소사 진상규명을 비롯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강력한 비판 기조를 유지해 왔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전남지사 출마 안한다"

청와대는 30일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남지사 출마설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실장의 전남지사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출마할 계획이 없다"며 "본인이 직접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남지사 출마설만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쓰고 싶은 것이냐"며 "일단 전남지사는 불출마다. 전남지사 대신 서울시장 기사를 쓰면 오보라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서실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기가 쉽겠느냐"고 덧붙혔다. 이 관계자는 임 실장의 '출마설'에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 가면 임 실장의 전남지사 출마 여부를 자유한국당 등에서 물어볼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흥 출신으로 16, 17대 국회의원 겸 서울시장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 실장은 청와대내 정치권 일각에서 전남지사 선거 출마하거나 박원순 시장의 뒤를 이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감 현장

제보접수·성과홍보... 의원들 SNS '좋아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하고 성과를 알리는 창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빈번히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국감 일정이 시작되기 전 불특정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창구로 SNS를 활용하는가 하면, 국감 질의 장면을 SNS로 중계하는 등 홍보의 장으로 애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주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로 4행시를 지어 올리고 제보를 받기 위한 사무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겼다. 민주당 운동과 관련해 헬기기총소사 진상규명을 비롯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강력한 비판 기조를 유지해 왔다.

국감 일정에 돌입한 이후부터 의원들은 질의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페이스북에 올렸다.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실마다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정의당 이정미·심상정 의원은 주요 국감 질의를 2~3분의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핵심 내용을 부각하는 자막을 넣고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깔아서 극적인 효과를 배가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청국감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국감 질의를 페이스북에서 생중계했다. 미리 몇 번째 질의자인지 알리면서 시청과 응원을 부탁해 호응을 얻었다. 같은 당 우승의 의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 질의를 담은 한 유튜브 채널 동영상은 보름도 지나지 않아 17만 건에 가까운 조회 수를 올렸다.

국감 일정에 돌입한 이후부터 의원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4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사통합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석사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2길 36